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2012년 8월부터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조사기법을 이용한 『아산 데일리 폴 (The Asan Daily Poll)』을 시작했다. 『아산 데일리 폴』은 매일 국가/개인 경제상황, 국가안보, 기타 사회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이다. 아래는 2013년 3월 2일(토)부터 3월 15일(금)까지의 조사결과이다.

3월 1·2주차 주요 조사결과

- ✧ 한국사회 주요이슈: 2~3월 동안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 집중조명 받음
  (2월: 15.4% → 3월: 25.7%)
- ✧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의 위협으로 한국인의 국가 안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 2·30대가 국가안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협이 있는 것으로 본 반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보 불안을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남
- ✧ 가장 불안한 사회불안요인은 '북한의 핵실험(39.9%)'과 '강력범죄(32.8%)'
-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응답자는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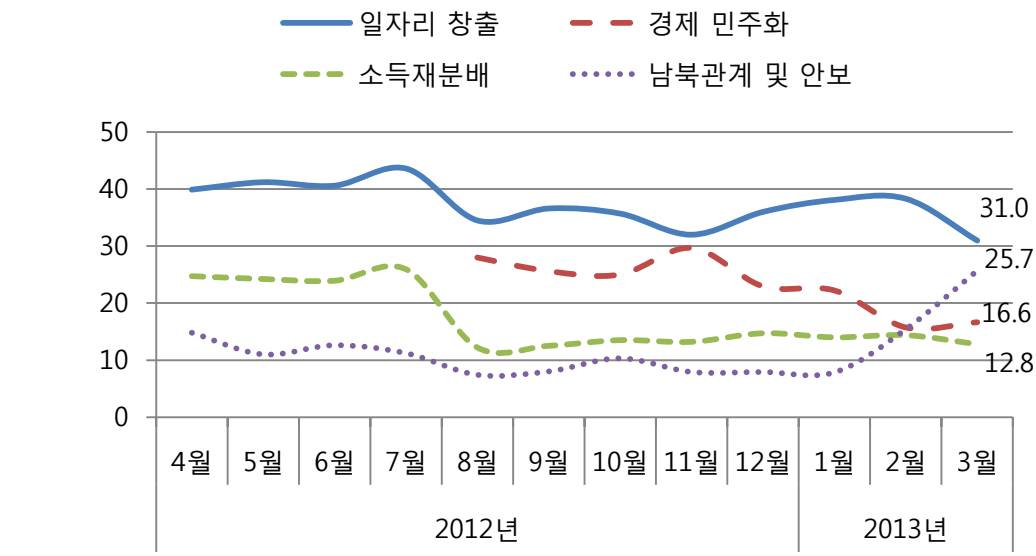
3월 1·2주차 주요이슈

- ✧ 3월 3일 여야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막판 협상
  안철수, 4월 재보선 노원병 출마 선언
- ✧ 3월 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사퇴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직법 처리 대국민 담화
- ✧ 3월 5일 북한, '키 리졸브' 훈련 시 정전 협정 백지화 할 것으로 선언
  임시국회 종료
- ✧ 3월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 ✧ 3월 9일 북 외무성, 핵 보유국 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 할 것으로 발표
- ✧ 3월 11일 한·미 키 리졸브 연합군사훈련 실시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 및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
- ✧ 3월 12일 김정은, 백령도 타격 부대 시찰
- ✧ 3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선출됨
  국회,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무산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176 SHINMUNRO 2-GA, SEOUL 110-062,KOREA
TEL:+82-2-730-5842 FAX:+82-2-730-5876
COPYRIGHT©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

■ **한국사회 주요이슈**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는 큰 반향이 없었던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가 북한의 핵실험과 지속적인 대남 도발을 계기로 올 2월과 3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던 경제민주화는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가안보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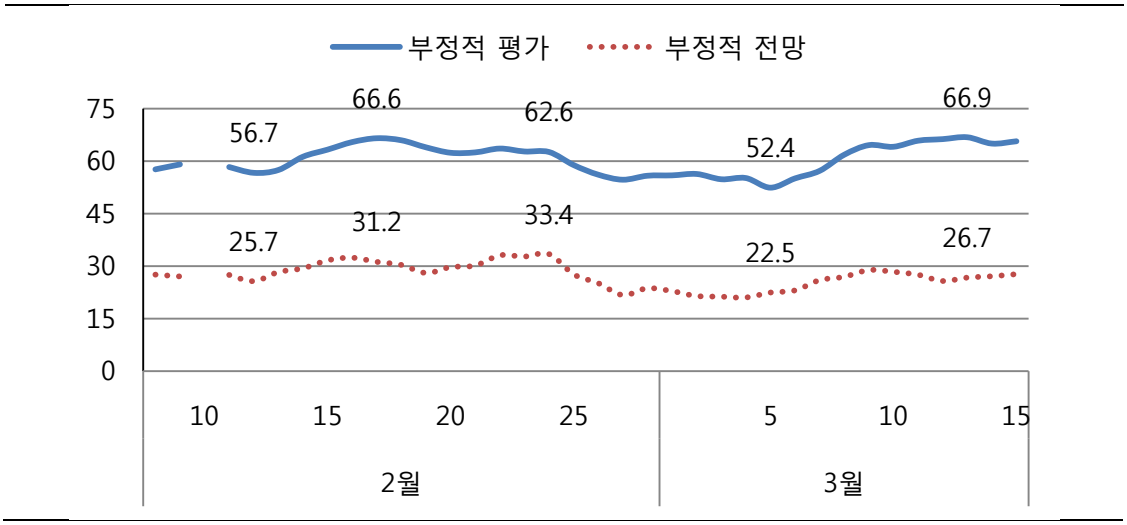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월 17일에는 핵실험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아지며 66.6%의 응답자가 현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진적으로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감소하며 3월 5일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핵실험 이전 수준인 52.4%로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UN안보리의) 추가 제재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3월 11일부터 남북 정전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 핫라인을 차단하겠다며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은 상당부분 국내 여론의 국가안보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3월 6일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3월 13일에는 올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6.9%의 응답자가 현 국가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래 국가안보에 대한 전망 역시 전반적으로 현 안보에 대한 평가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176 SHINMUNRO 2-GA, SEOUL 110-062,KOREA
TEL:+82-2-730-5842 FAX:+82-2-730-5876
COPYRIGHT©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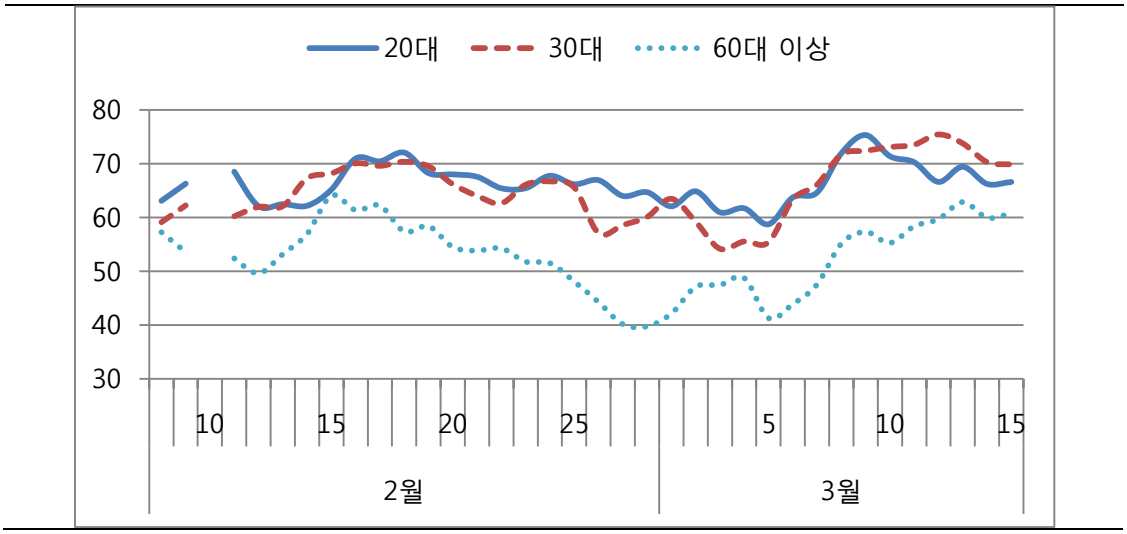


■ **국가안보 평가: 세대별 분석**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2·30대의 비율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오랜 기간 6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세대의 경우 3차 핵실험 이후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급속히 떨어지다, 3월 초 북한의 정전협정 폐지 등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금 안보 불안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4·50대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중간 수준의 안보 불안감을 보였다.

2·30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높은 안보 불안감을 보였다. 특히 20대는 3월 초까지도 60% 초중반의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여겼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예고 발표 이후에는 70%가 넘는 응답자가 안보 불안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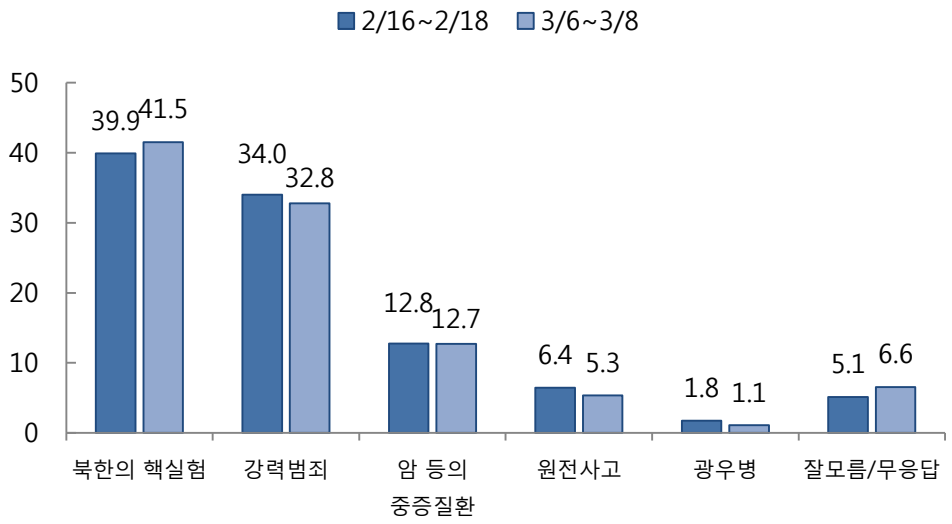
60대 이상은 핵실험 이후 안보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2·30대와 비슷한 수준 인 60% 중반까지 늘었다. 60대는 60% 정도 안보 불안을 유지한 2·30대와는 달리 십여 일만에 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급락하며 2월 28일에는 39.8%까지 떨어졌다. 3월 들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안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60대의 비율이 다시 60% 이상이 됐다.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176 SHINMUNRO 2-GA, SEOUL 110-062,KOREA
TEL:+82-2-730-5842 FAX:+82-2-730-5876
COPYRIGHT©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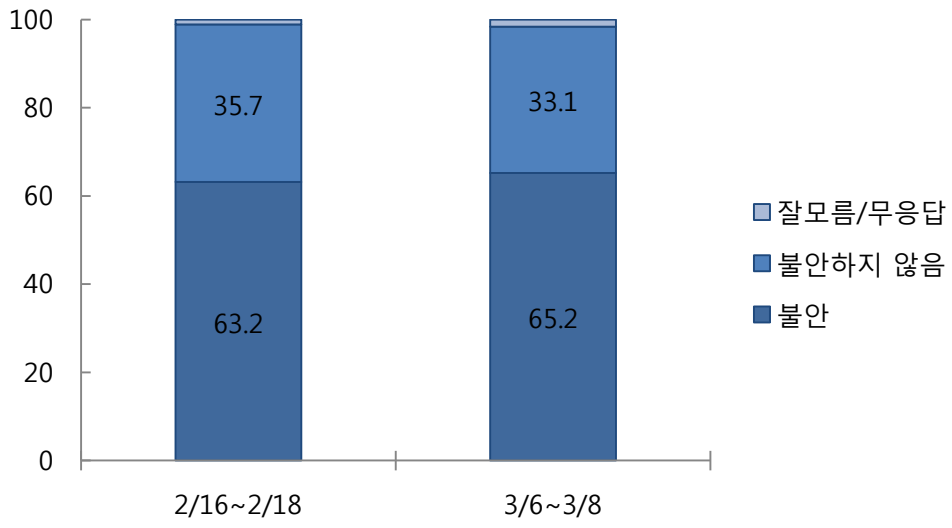
■ **핵실험과 사회불안요인**

한국인은 여러 사회불안요인 중 북한의 핵실험을 여전히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3차 핵실험 직후인 2월 중순에 실시한 조사에 비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불안이 소폭 상승하였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정전 협정 백지화 주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지속적 도발 위협으로 핵실험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는 한국사회에서 두 번째로 불안한 요소였다(32.8%).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불안**

전체 응답자의 65.2%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으나 33.1%는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열 명 중 세 명은 불안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용(38.3%)'이라고 보거나,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33.1%)'으로 여기고 있었다.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176 SHINMUNRO 2-GA, SEOUL 110-062,KOREA
TEL:+82-2-730-5842 FAX:+82-2-730-5876
COPYRIGHT©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 ◆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문의: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아산정책연구원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176 SHINMUNRO 2-GA, SEOUL 110-062,KOREA
TEL:+82-2-730-5842 FAX:+82-2-730-5876
COPYRIGHT©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LL RIGHT RESERVED